

◆ 재속 프란치스코 오렌지 카운티 형제회 ◆ St. Francis Fraternity at Anaheim ◆



# 평화의 도구

(제 167 호)

07년 7월

\*영적보조자 : 이 규성(바오로),sfo (714)537-1974  
 \*회 장 : 이 병재(힐라리오),sfo (714)879-8679  
 \*부회장 : 오 수원(바오로), sfo (714)998-2898  
 \*서 기 : 유 근숙(율리아),sfo (714)572-3035  
 \*회 계 : 박 용원(야고보),sfo (562)924-5840  
 \*양 성 : 이 세홍(바오로),sfo (562)860-6930  
 \*사도직 : 이 용석(안토니오),sfo (714)739-4226

▶월례회: 매월 4째 일요일 오후 12:30분 ▶장소: 성 토마스 성당 412 N. Crescent Way Anaheim, CA 92801

## E-MAIL

\*김 용철(도미니꼬)신부: kycofm@hanmail.net  
 \*이 규성(바 오 로): paullee92840@yahoo.com  
 \*이 헌일(어거스틴): bonumsfo@yahoo.com  
 \*유 근숙(율 리 아): juliayoo@sbcglobal.net  
 \*이 세홍(바 오 로): paulsaelee@yahoo.com

\*박 영철(요 한): johnparksfo@yahoo.co.kr  
 \*박 용원(야 고 보): jwypark@yahoo.com  
 \*박 영환(빅토리노): ypark98@yahoo.com  
 \*이 용석(안토니오): ysleesfo@yahoo.com  
 \*백 호명(프란치스코): frankb655@yahoo.co.kr

## 형제회 소식

### ■ 가톨릭 위커 봉사

지난 7월 1일(일) -산타아나 가톨릭 위커에서 무숙자들을 위하여 형제회 및 평화의 모후 단원과 함께 음식 봉사를 하였습니다.

### ■ 입회 서약식

지난 6월 24일(일) 형제회 합동(OC, SD, RH, KB)으로 입회 및 서약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김기수(프란치스코) 신부, Mark Schroeder 수사, 이영신(마르티노) 수사님이 미사를 집전해주셨습니다. 입회. 서약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약 자 총 11명 -

#### \*OC 형제회 3명:

김 재연(안젤라), 배 기옥(세실리아)  
 음 광인(아오스팅)

#### \*성 디에고 형제회 3명:

고 금숙(마르티나), 옥 인중(프란치스코)  
 옥 영옥(글라라)

#### \*RH 성 글라라 형제회 1명:

오 상연(베로니카)

#### \*플베 형제회 4명:

이 승국(글라라), 이 호예(안젤라)  
 임 창숙(로사리아), 엄 정자(분다)

- 입회자 총 5명 -

#### \*OC 형제회 1명:

백 병길(힐데갈드)

#### \*플베 형제회 4명:

김 승자(도미니카), 김 은숙(그라시아)  
 김 해자(젤뚜르다), 호 경진(테레사)

### ■ 형제회 15년사 원고 모집

형제회 15년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하여 15년사 편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찬에 도움이 될만한 회원님들의 원고와 글을 기다립니다. 내용은 형제회 소감, 생활, 수필, 시, 조언 등 이며 또한 책자 출판 경비 충당을 위하여 기부금이나 광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 ■ 월례회 강의 계획

-오늘 7월 22일 월례회는 김재섭(요한 비안네) 신부님 께서 방문하셔서 강의 및 미사를 집전해 주십니다. 또한 오는 11월에도 방문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월례회때는 성 프란치스코 성당 이영신(마르티노) 수사님께서 형제회를 방문하셔서 강의할 계획입니다.

-월례회 강의는 양성반 출석과 관련이 있으므로 꼭 참석을 요합니다.

## ■ 형제회 사목적 방문

오는 8월 지구 형제회에서 저희 형제회에 사목적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 ■ 소금 램프 판매

저희 형제회에서는 지난번 소금램프를 판매하여 수익금 전액을 성전 기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소금 램프를 더 판매할 예정입니다. 구입 문의는 평의 위원에게 하여 주십시오.

## ■ 이태리 성지 순례 완료

이태리 성지 순례팀이 유수일 사베리오 신부님을 모시고 지난 5월 21일-6월 5일까지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신앙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 월보 담당

형제회 월보 제작을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관심있는 분을 평의회원에게 문의 바랍니다.

\*\*\*\*\*

【회원 소개- 9번째】

## 나는 누구 일까요 ?

저는 40대이며 2003년도에 형제회에 가입했습니다. 형제회 가입한 동기는 어려서 수녀님이 되고픈 꿈을 이루지 못하여 어쉬워 하며 살다가 재속의 삶 속에서 수도자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형제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회개의 삶을 사시면서 항상 자신이 변화되면서 가난함과 피조물의 자연을 사랑하시는 순수한 삶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형제회에 대해 좋아하는 점은 형제회에서 양성교육을 통하여 성인의 영성을 공부하면서 성인의 모범을 배우고 또 생활화함으로써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 식구이며 늘 예수님 표현으로 사랑의 표현을 심술쟁이처럼 하는 남편, 그리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고생한 햇수 만큼 행복을 누리고 있는 지금의 나! 행복합니다. 저는 머리 위에 예쁜 집을 짓는 것이 특기이고 또 직업입니다. 나의 취미는 책읽기, 골프 입니다. 성격은 남을 배려하며 너무 잘 웃습니다. 저는 초라해 보이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거룩한 신비주의자로 보이지 않는 참다운 프란치스코의 삶의 이상을 실현 하고 싶습니다.

월례회 시간에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엿볼 수 있도록 신앙 체험담이나 생활 체험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

【러시아 선교】

## 복지관 외부 마무리 공사

김 웅철(도미니꼬) 신부

T 평화와 선

지난 겨울에 마무리 하지 못한 건물 외벽 공사가 서서히 마무리 되어갑니다.

이제서야 복지관의 전체 모습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공사하기가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노동자들의 부족과 임금 상승 등..

이제 올 10월 4일 러시아의 복지관을 축성할 예정입니다. 그 날을 위해 마지막 공사에 전력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기도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원 소개-홍병숙(율리안나) 자매

우수리스크에서

\*\*\*\*\*

【영 성】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1) (Saint Francis of Assisi)

언젠가 프란치스코가 천사의 성 마리아 수도원에서 맛세오 형제와 지내고 있을 때 맛세오 형제가 농담조로 "왜 당신을..., 왜 당신을.. 왜 당신을..." 하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겠지요. 그러자 맛세오 형제는 "왜 세상은 당신을 따라가며, 또 왜 누구나 다 당신을 보고 싶어하고,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 하며, 그것을 순종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미남도 아니고, 학식이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귀족도 아닌데, 왜 온 세상이 당신을 것처럼 따르는 것입니까?" 하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성인의 겸손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맛세오 형제가 물어 보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같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13세기에 살았던 아씨시의 거렁뱅이 프란치스코. 그가 살았던 복음적 삶은 어떤 매력이 있기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3세기의 성인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를 소개합니다. A Gospel Way of Life-Roy M. Gasnick, O.F.M.

교회가 국가와 지나치게 동일 시 했을 때, 주교들과 아빠스들과 심지어는 교황들까지 종교지도자들이라기 보다는 권력자들이 되었을 때, 크리스찬들이 종교와 규범으로써 복음 대신 봉건적 예법과 권위체제를 수용했을 때, 아씨시의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교회를 재건

하고 복음자체가 지니는 진리와 기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세상이 차가와 지고 있었을 때,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도 불타오르도록 복된 프란치스코의 육신에 당신 수난의 거룩한 흔적을 박아 주셨나이다..."

프란치스코는 복음 전체에 대한 증인이었음에도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지도 못했고 실천하지도 못한 복음의 그 관점들을 역설하는데 이바지했습니다. 이 관점들 가운데 다음의 것들이 탁월성을 지닙니다.

### 아버지로서의 하느님(Fatherhood of God)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하느님은 당신의 법을 거스리는 범법의 수호를 계속 해야리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복종해야 하는 엄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은 개인적으로 친밀한 <어떤 사람>이었고, 그의 아들과 딸들의 성공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성공의 필요한 은총을 주며, 그들이 자유의지로써 수용하거나 혹은 거절하도록 여지를 남겨 두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주 아들로서의 온전한 신뢰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하느님께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 그리스도의 인간성(The Humanity of Christ)

그리스도와 프란치스코간의 애정 관계에 대해서는 하등의 의심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중세 말엽의 회화들 속에 그렇게도 많이 나타나는, 최후의 심판을 맡으신 심판관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인간을 사랑하시어 인간이 되신 베들레헴의 그리스도이었고, 영적으로 굶주린 인간을 위해 음식으로서 자신을 내주었던 최후 만찬의 그리스도이시며, 인간이 자기 자신의 비인간적 상태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희생재물로서 죽으셨던 갈바리산의 그리스도 이시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던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사람이여 보십시오! 육신에 있어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모상에 따라 그대를 지으시고 형성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얼마만큼 탁월하게 그대를 들어 높이셨는지를!"

### 보속, 회개 (Penance-Conversion)

우리가 그같은 아버지(하느님)와 그같은 형제(그리스도)를 가졌음을 발견하면서 압도 당할 때 전적인 회개 이외에, 곧 자신의 옛 생활을 슬퍼하거나 거부하는 것 이상의,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쳐버리는 애정관계 같은 그 회개 외에 다른 응답이란 불가능합니다.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회개 그이 보속은 대단히 기쁨의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완전한 충족감을 주었고, 만약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면, 결코 자기를 버릴 줄 앎을 신부인, 다른 어느 신부보다도 더 뛰어난 신부(정배)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의 회개에 대해서, 프란치스코는 "나에게 쓰디쓰게 보였던 것이 영혼과 육신의 감미로움으로 변했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

### 【목 상】

## 가난하다는 것

가난은 돈이 있거나 없는 것,  
몸에 이가 있거나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난은 참 행복입니다.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가난은 존재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하나의 양식으로써  
성령의 선물입니다.

돈 많은 자본가들의 집에 가 보십시오.  
그리스도교를 믿는 가정일지라도  
이같은 가난의 행복이 결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집집마다 가구와  
물건들이 모두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유행과 사치로 결정되며  
합당한 필요성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의 결핍,  
더 나아가 이러한 유행의 종살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단단히  
얽어매고 있는 악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유행이라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유행한다는 이유로 덮을 것을 사지 않습니다.  
덮을 것이 없으면 내 어린이가 잠자리에서 추  
위에 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빵, 덮을 것, 식탁, 불,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목적은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은 모두 악마에게서 온다."는  
말은 이런 진실에 관한 예수님의 표현을  
해석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라는 것이 유행이고 관습이며  
사치, 비만, 호화, 숙박, 넘쳐남입니다.

어쨌든 이 지극히 감미로운 가난의  
참행복에 갑자기 이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가난의 참 행복을  
실현시키기에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곧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비유 속의 그 낙타가  
우리의 병든 영혼의 녹슨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기적도 일으키실 것입니  
다.

- 까를로 까레또의 매일 묵상 중에서-